

아트리움을 위한 조형물 디자인

A design of the Artwork for the Atrium

이란표* / Lee, Ran-Pyo

Abstract

This work aims at the design of the artwork for the atrium of a furniture department store. In complying with the request of the building owner I have established the basic concept, 'silence in movement - movement in silence', to design a artwork, which not only can make the various atmospheres in the store to the unique one, but also arrange an emotional stability for the visitors. Most exhibited furnitures are those that demand particular interests from the visitors, and the exhibition scale is enormous. So it is difficult to sustain the continuous inspiration and the emotional stability, and also it is hard to make the store have the consequent image. This problem can be resolved through the installation of the artwork that can evoke the visitor to the abundant sensitive receivability. The materials, which are used to express the basic concept, are water, concrete, light and aluminium that represent a unified harmony in a contrast each other.

키워드 : contrast, symmetry and asymmetry, color tuning, variable lightening

1. 작품 개요 및 디자인 배경

본 작품은 독일 프리드리히스하펜(Friedrichshafen)에 있는 고급가구 백화점의 아트리움 조형물 설계디자인을 목표로 한 것이다. 지하 1층, 지상 6층의 거대한 가구백화점 한 가운데에 1층부터 6층까지 전 층에서 체험될 수 있는 조형물이 설치되어야 하기 때문에, 설치조형물은 사실상 가구백화점의 전체 이미지를 담지하고 있어야 하는 것이다. 이러한 요구에 부응하여 백화점 내의 다양한 분위기들이 한데 어우러질 수 있도록 해주는 동시에 정신적 안정을 마련해줄 수 있는 조형물을 디자인하기 위해 '움직임 속의 고요 - 고요함 속의 움직임'이라는 전체 컨셉을 수립하였다. 가구들이 대부분 특별한 감지를 요구하는 디자인 가구들이고 전시 규모 자체가 거대하기 때문에 방문객들은 지속적인 감흥과 정서적 안정을 유지하기 어려우며, 백화점 자체는 일관된 이미지를 갖기 힘들 수 있다. 이러한 문제는 위와 같은 기본 컨셉에 의거하여 방문객들에게 풍부한 감각적 수용능력을 환기시킬 수 있는 기능성과 예술성을 고루 갖춘 조형물의 설치를 통해 해결될 수 있는 것이다.

전체 컨셉을 표현하기 위해 사용된 소재들은 서로 대조를 이루는 가운데 통일된 조화를 나타내 줄 수 있는 물, 콘크리트, 빛, 알루미늄이다.

본 작품이 의도한 두 가지 효과는 다음과 같다. 하나는 방문

객들의 감성을 다양하게 북돋을 수 있는 미적인 견인력의 창출이고, 다른 하나는 각 층에서 동일하게 체험될 수 있는 휴식 공간 이미지의 창출이다. 결국 언뜻 보기에 서로 모순적이라고 여겨질 수 있는 이러한 두 가지 효과를 야기 시키는 조형물의 설치를 통해 가구백화점은 다차원적인 체험의 장소가 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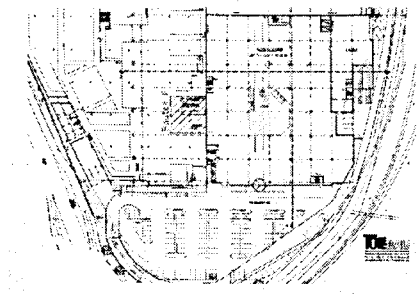
2. 디자인 컨셉

아트리움 한가운데에 설치되는 조형물은 서로 모순 되어 보이는 '움직임 속의 고요 - 고요함 속의 움직임'이라는 전체 컨셉을 실현시킬 수 있는 기제로서 단단한 콘크리트 구조물과 그 위를 타고 위로부터 흘러내리는 물을 사용하였다. 조형물의 표면을 따라 흐르는 물은 우선 청각과 시각 등의 감각을 일깨울 수 있다. 이를 위해 다음과 같은 디자인 모티브들이 사용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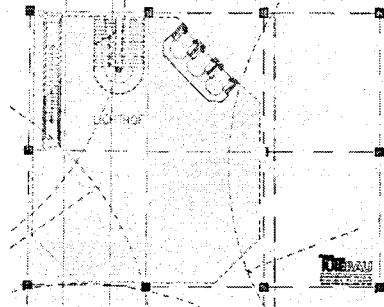
- 대칭과 비대칭의 상호작용
- 입체적인 색채조율
- 역동적인 조명

이 같은 모티브들을 통해 본 작품이 의도하는 것은 방문객들에게 물, 빛, 색 그리고 형태와 같은 요소들을 집중적으로 체험하도록 하면서 아트리움에서 각 요소들 간의 상호유회를 만끽할 수 있는 가능성을 제공해 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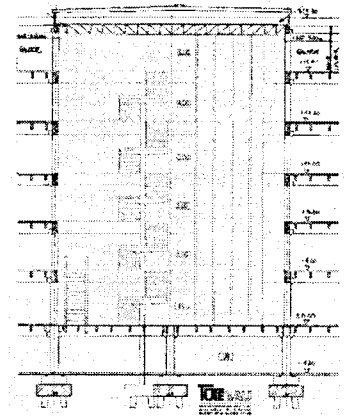
* 정희원, 배재대학교 건축학부 실내건축학 전임강사



<그림 1> 건물 전체 평면



<그림 2> 아트리움 평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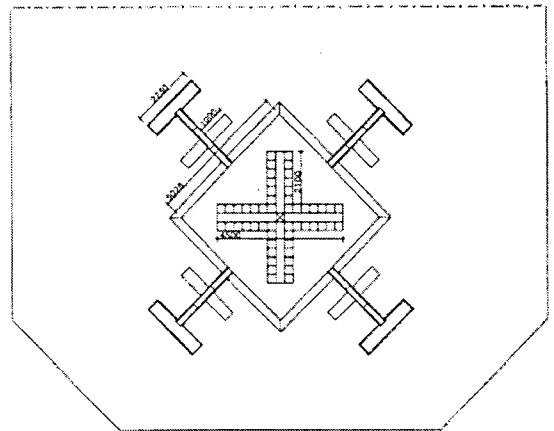
<그림 3> 아트리움 입면

3. 디자인 프로세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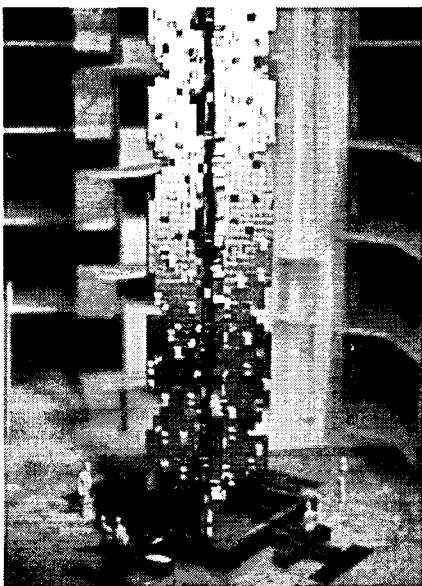
조형물은 높이 18m, 폭 4m 50cm, 두께 30cm의 콘크리트 판 네 개로 이루어져 있다. 무광 알루미늄으로 표면 처리되고 30cm 간격으로 금이 새겨져 있는 콘크리트 판 표면에는 30cm × 30cm 크기의 골 함석판이 가로 세로로 엇갈려 접착되어 있다. 조형물 표면을 동적으로 표현하기 위해 30cm × 30cm × 30cm 크기의 조명상자와 물받이 상자를 설치한다.

조명상자는 컴퓨터로 조정 가능한 RGB 조명시스템에 의거하여 다양한 색조를 연출하며 물받이 상자들은 투명 아크릴 재질로 구성되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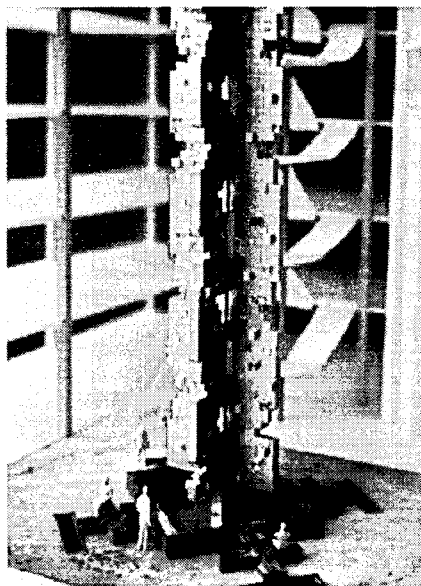
그 외에도 조형물 표면을 입체적이고 역동적으로 보이도록 하기 위해 조명상자와 물받이 상자의 비대칭적인 설치에 부합되게 골 함석판 역시 일정한 규칙성 없이 부착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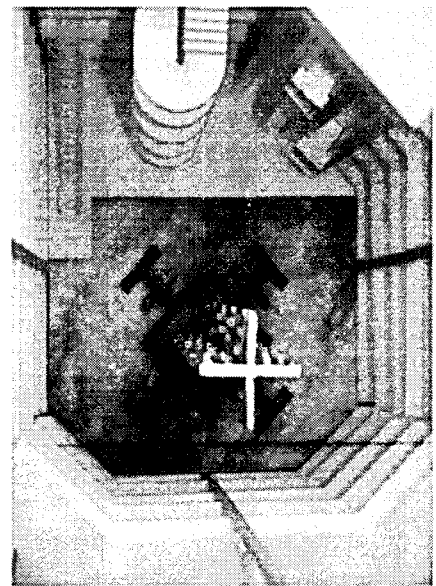
<그림 4> 아트리움 내의 조형물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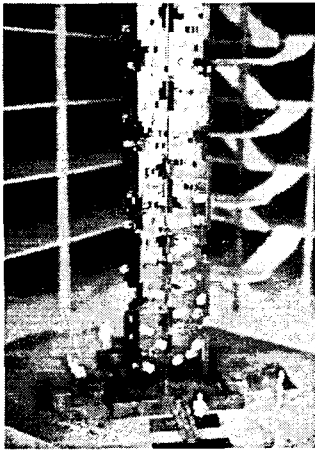
<그림 5> 조형물 정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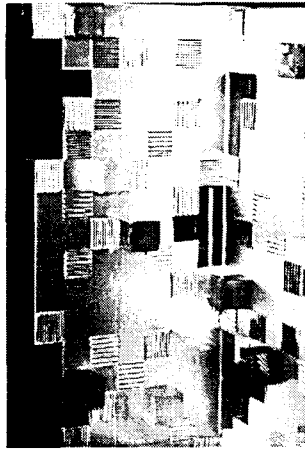
<그림 6> 측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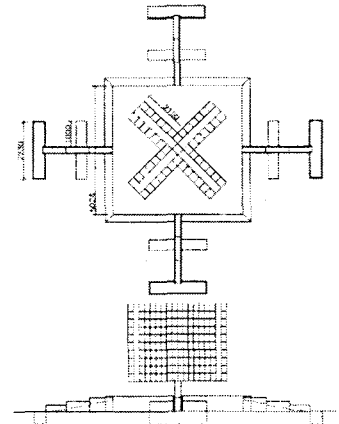
<그림 7> 조감



<그림 8> 조형물 측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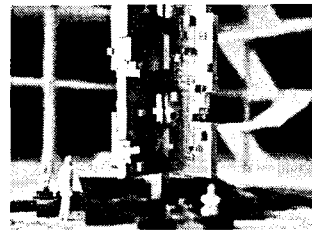
<그림 9> variable lightenin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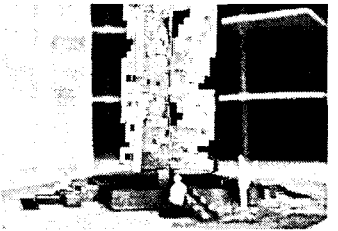
<그림 10> 조형물 평면 및 입면

형태상의 역동성과는 달리 실제적인 역동성을 부각시키기 위해 물이라는 요소가 도입된다. 정적인 형태에 동적인 효과를 만들어내기 위해 십자형태의 조형물의 위로부터 표면을 따라 흘러내리는 물은 물받이 상자를 넘쳐흐르고 조명상자의 표면과 만남으로서 다양한 빛의 반사효과를 가져오며, 각진 표면들을 유동적으로 보이게 만든다. 그리하여 소리 없이 다양한 표면형태들을 따라 흘러내리는 물은 고요한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움직임 감성적으로 체험할 수 있도록 해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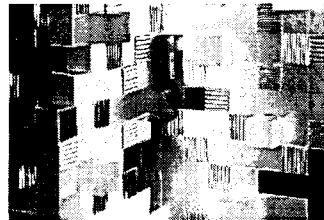
회색-보라색의 화장암으로 만들어진 수조는 네 개의 긴 걸가지 수조들과 연결되어 있으며 큰 수조에서 모인 물은 경사진 수로를 타고 걸가지 수조들로 흐르게 된다. 이러한 경사진 수로 양옆에는 방문객들이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같은 재질의 화장암 벤치가 마련되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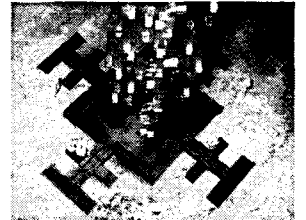
<그림 11> 조형물과 수조



<그림 12> 조형물과 수조



<그림 13> variable lightening



<그림 14> 수조

4. 디자인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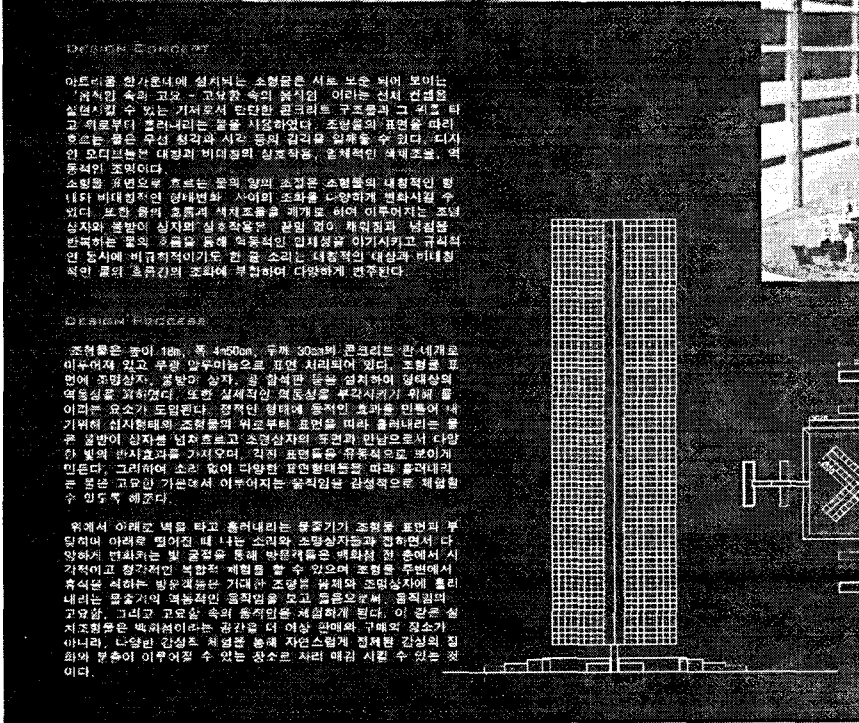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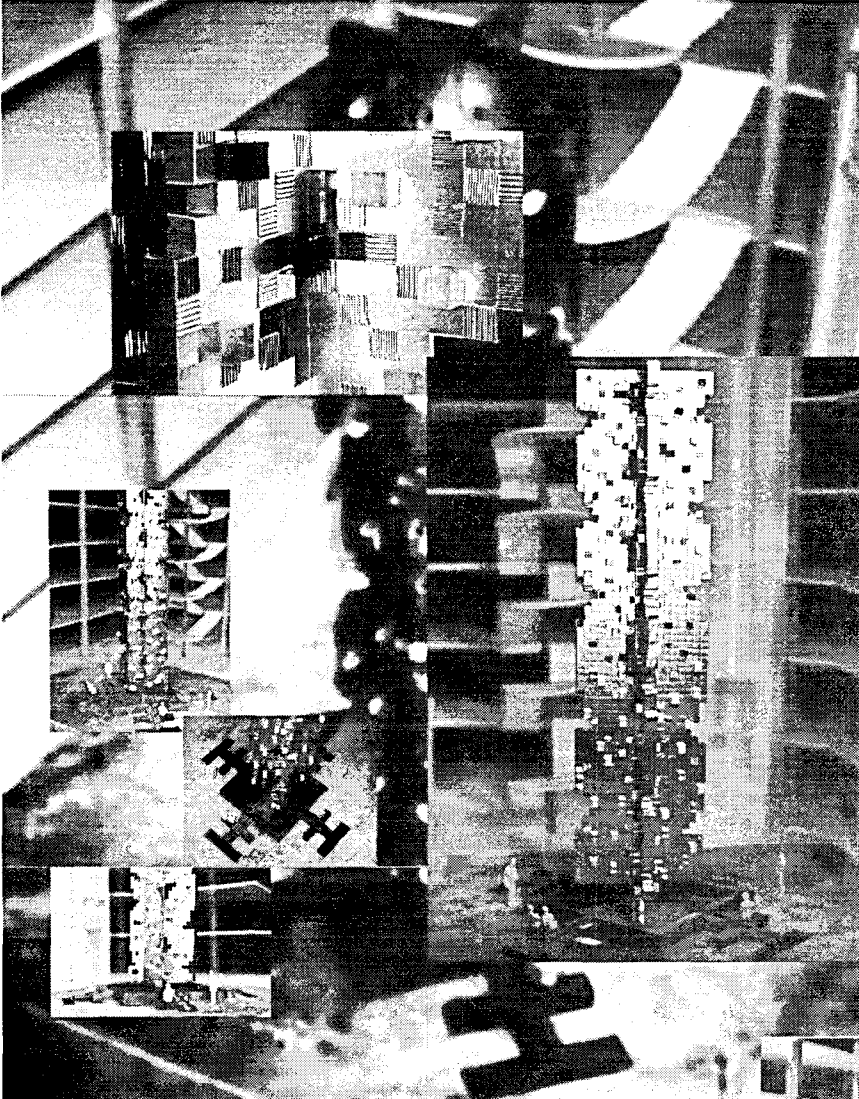
앞서 디자인 컨셉에서 제시된 바 있는 세 가지 디자인 모티브들은 다음과 같은 형태로 실현된다. 우선 조형물 표면으로 흐르는 물의 양의 조절은 조형물의 대칭적인 형태와 비대칭적인 형태변화 사이의 조화를 다양하게 변화시킬 수 있다. 둘째, 물의 흐름과 색채조율을 매개로 하여 이루어지는 조명상자와 물받이 상자의 상호작용은 끊임 없이 채워짐과 넘침을 반복하는 물의 흐름을 통해 역동적인 입체성을 야기 시킨다. 마지막으로, 규칙적인 동시에 비 규칙적이기도 한 물 소리는 대칭적인 대상과 비대칭적인 물의 흐름 간의 조화에 부합하여 다양하게 변주된다.

결과적으로 위에서 아래로 벽을 타고 흘러내리는 물줄기가 조형물 표면과 부딪히며 아래로 떨어질 때 나는 소리와 조명상자들과 접하면서 다양하게 변화되는 빛 굴절을 통해 방문객들은 백화점 전 층에서 시각적이고 청각적인 복합적 체험을 할 수 있으며, 조형물 주변에서 휴식을 취하는 사람들은 거대한 조

형물 몸체와 조명상자에 흘러내리는 물줄기의 역동적인 움직임을 보고 들음으로써, 움직임의 고요함, 그리고 고요함 속의 움직임을 체험하게 된다. 결국 이 같은 설치 조형물은 백화점이라는 공간을 더 이상 판매와 구매의 장소가 아니라, 다양한 감성적 체험을 통해 자연스럽게 절제된 감성의 정화와 분출이 이루어질 수 있는 장소로 자리 매김시킬 수 있는 것이다.

참고문헌

1. Böhme, G. und Böhme, H., Feuer, Wasser, Erde, Luft, München 2004.
2. Fehlhaber, J. M., Drees, H. und Knopp, W., Beton und Kunst, Düsseldorf 1997.



ARTWORK
FOR THE ATRIUM

독일 Friedrichshafen에 위치한 가구 백화점
상징 조형물 디자인

지하 1층, 지상 6층의 거대한 가구백화점 한 가운데에 1층부터 6층까지 천 속에서 세워질 수 있는 조형물이 설치되어야 한다. 때문에 설치조형물은 사실상 가구백화점의 전차 이미지를 담지 않고 있어야 한다. 이러한 요구에 부응하여 계획된 내외 다양한 문맥기들이 현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주는 동시에 정신적 안정을 미연하게 할 수 있는 조형물을 디자인하기 위해 '중심점' 속의 고요하고 엄밀한 움직임이라는 전체 개념을 수립하였다.

가구들이 대부분 특별한 감성을 요구하는 디자인 가구들이고 전사 규모 자체가 거대하기 때문에 모든 것들은 지속적인 인용과 성실한 안정을 유지하기 어려우며, 반복된 지체는 일관된 이미지를 갖기 힘들 수 있다. 이러한 문제는 역의 같은 기본 원칙에 의거하여 방문객들에게 풍부한 감각적 수용능력을 할기시킬 수 있는 가능성과 예술성을 모두 갖춘 조형물의 성립을 통해 해결될 수 있는 것이다.

전체 건축을 표현하기 위해 사용된 수재들은 서로 대조를 이루는 가운데 통일된 조화를 나타내주는 줄, 콘크리트, 아크릴, 빛과 조형, 금속이다.

조형물이 의도하는 두가지 효과 중 하나는 방문객들의 감성을 다양하게 자극할 수 있는 미적인 경관형의 창출이고 다른 하나는 각 층에서 동일하게 채워질 수 있는 휴식 공간 이미지의 창출이다. 여섯 남기에 서로 조화적이라고 여겨질 수 있는 이러한 두가지 효과를 야기 시키는 조형물의 성립을 통해 가구백화점은 다차원적인 차원의 창조가 될 수 있다.

DESIGNER'S CONCEPT

아트리움 한가운데에 설치되는 조형물은 시선 보충 되어 보이는 '실적인 속의 고요 - 고요한 속의 움직임'이라는 신시 개념을 실현시킬 수 있는 것처럼 단단한 콘크리트 구조물과 그 위로 타고 위로부터 흘러내리는 물을 상징하였다. 조형물의 표현을 따라 흐르는 물은 우선 침묵과 시간 중립 의미를 잃어버릴 수 있다. 디자인 입안 단계에서 대형의 비대칭의 심포리즘, 순서적인 색채조율, 역동적인 조형이다.

흐르는 물의 양의 조절은 조형물의 내장적인 힘과 비대칭적인 형태변화 사이의 조화를 다양하게 변화시킬 수 있다. 또한 물의 흐름과 색채조율을 체계로 하여 이루어지는 조형상징과 물방이 상징의 실용적용을 끝낼 것이 개인적과 넘칠듯 반복하는 물의 흐름을 통해 즉흥적인 인지성을 이기시키고 규칙적인 동시에 비규칙적이기 두 면을 동시에 내장적인 대상과 비대칭적인 물의 흐름간의 조화에 부합하여 다양하게 진행된다.

DESIGNER'S PURPOSE

조형물은 높이 18m, 폭 4x30m, 두께 30cm의 콘크리트 판 네개로 이루어져 있고 무량 알루미늄으로 표면 처리되어 있다. 조형물 표면이 조명장치, 물방과 상징, 물, 활짝한 물을 상징하여 일대일의 열을 상징한다. 또한 '시계'의 '역동성'을 부각시키기 위해 물이라는 요소가 도입된다. 정적인 형태에 동적인 효과를 만들어내기 위해 심지형태의 조형물의 위로부터 표면을 따라 흘러내리는 물은 물방이 상징을 넘쳐흐르고 순정상자의 주변과 만남으로 다양한 빛의 반사효과를 가지어, 각각 표현력을 유동적으로 보이게 만든다. 그러하여 소리 없이 다양한 표현형태를 따라 흘러내리는 물은 고요한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움직임은 감성적으로 체험할 수 있도록 해준다.

위에서 아래로 내려와 타고 흘러내리는 물줄기가 조형물 표면과 부딪히며 아래로 떨어질 때 나는 소리와 조형상징들과 결합해서 다. 양쪽에 반사되는 빛과 물줄기를 통해 방문객들은 위치를 잘 눈에서 시각적으로 향각적인 역할과 역할을 할 수 있으며 조형물 주변에서 휴식을 취하는 방문객들은 거대한 조형물 자체와 조형상징에 흘러내리는 물줄기의 역동적인 움직임과 물줄기를 통해 물줄기의 고요함, 그리고 고요한 속의 움직임을 체험하게 된다. 이 같은 설치 조형물은 반복적이거나 공간은 더 이상 관여의 구매와 장소가 아니라, 다양한 감성적 체험을 통해 자연스럽게 펼쳐질 감성의 변화가 부수어 이루어질 수 있는 장소로 차려 내기시킬 수 있는 것이다.

